

먼 옛날, 영국의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총명한 머리와 뛰어난 기술로 상당한 부를 얻었다. 그 인품 또한 훌륭해, 근방에서 그녀의 평판을 해하려는 자는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고 상인은 한 무역상을 만나 결혼을 했다. 무역상의 이름은 오비완 케노비였다. 두 사람은 딸을 한 명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레아였다.

시간이 흘러도 케노비 집안의 명성은 여전했다. 순탄치만은 않은 삶이었지만 케노비 부부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레아는 부모의 성품을 꼭 닮아 주변 어른들의 예쁨을 받으며 컸다.

레아가 막 성년이 될 즈음 나라에 역병이 돌았다. 케노비 가족 또한 그것을 피해가진 못했다. 상인은 결국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한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오비완은 절망에 빠졌다.

역병이 물러간 이후에도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길 두려워했다. 레아는 점점 망가져만 가는 자신의 아버질 보며 가슴 아파했다. 레아는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들을 금방 기억해냈다. 그녀 역시 어머니 못지않은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었다. 레아는 상인이 생전 쌓아두었던 두터운 친분과 좋은 평판 덕에 빠르게 가업을 다시 일으켰다. 하지만 오비완은 그동안 여전히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자신을 굶아 먹고 있었다.

레아는 오비완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케

노비 부부를 안타깝게 여겼던 마을 사람들까지 합심해 오비완을 도왔다.

상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오비완은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햇빛조차 낯설어하던 그는 레아를 도우며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케노비 집안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레아는 한 무역상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강 위를 지나고 있었다. 물에 막 도착을 할 때쯤, 갑자기 화창했던 하늘이 누군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어두워지더니 곧이어 폭우가 쏟아졌다. 거센 파도와 빗줄기 탓에 레아가 타고 있던 배는 꼼짝없이 뒤집혔다. 그녀는 칠흑과도 같이 어두운 강 아래로 가라앉으며 죽음이 다가옴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은 그녀 놓아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목을 따갑게 긁어대는 강물을 토하며 그녀가 눈을 뜨자 그곳은 물이었다. 원래 도착하기로 했던 곳이 아닌 완전히 낯선 장소였다. 강이 끝나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숲이 레아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숲의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나무와 사람 머리통만 한 이파리들은 마치 그곳을 지키는 정령처럼 보였다.

레아는 그 입구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예상조차 하지 못 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어떤 일을 초래할지는 더욱이 상상하지 못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숲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토해낼 것처럼 어두워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매우 허기가 졌기 때문이다.

레아가 거무죽죽한 이파리들과 축축한 늪지대를 얼마나 지나쳤을까. 한 두 방울씩 떨어지던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다행히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뻥뻥이 들어찬 나무들 덕에 레아는 비를 그리 많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숲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그녀의 다리는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바라보며 레아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를 떠올렸다.

허기에 정신을 잃어 가던 레아는 나무 사이로 어머니의 환상을 보았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쫓아 뛰어가던 레아는 그만 나무 등치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레아, 일어나렴.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레아는 넘어진 채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떨구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이 새어 나왔다. *어머니, 전 당신만큼 강인하지 못 한가 봅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였다. 이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소리가 들리고, 레아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다시 번개가 번쩍이고, 높다란 성의 꼭대기가 멀지 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레아는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났다. 성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마치 굳은살이 뻗어 오른 어머니의 손이 자신을 잡아 이끄는 것 같다고 느꼈다.

성의 입구에 도착한 레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다. 성문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넝쿨과 이파리로 뒤덮여있었다. 문을 열어줄 자가 없단 생각에 레아는 절망했다. 성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던 그녀는 울타리 사이로 정원을 보았다. 누군가 정성 들여 가꾸어 놓은 듯 깔끔한 정원이었다. 레아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었다.

달빛은 성의 높은 창문을 타고 들어와 싸늘한 바닥을 감싸고 있었다. 눈을 뜬 레아는 파란 빛의 물결을 보고 마치 설원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차가운 공기와 달리 그녀의 몸은 보드라운 담요에 덮여 있었다. 온기를 머금은 담요를 걷어내고 레아는 힘겹게 다리를 움직였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누군가의 침실인 듯했다. 맨발이 바닥에 닿자 냉기가 그녀의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레아는 몸을 부르르 떨며 어깨에 담요를 둘렀다.

갑자기 번개가 쳤다. 고요한 방 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창문 옆에서 있던 인영이 그 빛에 몸을 드러내었다. 거대한 몸집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곤 레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빛이 사라지고,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가만히 서 있던 인영이 레아에게 한 발자국 다가왔다. 레아는 숨을 집어삼켰다. 이어 어딘가에 막힌 듯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숨소리 같았다.

“당신은 누구지?” 검은 인영이 물었다.

“...저, 전 그저 지나가던 행인입니다.”

“내가 물은 건 그것이 아니다. 어쩌다 이곳을 찾아오게 된 거지?”

“제가 타고 있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숲속을 헤매다 이곳을 보았고 무작정 걸어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이런, 아버지...내 아버지...”

형설수설 말을 하던 레아는 얼굴을 양손에 묻고 흐느끼는 소리를 내었다. 검은 인영은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네 말고 이곳을 또 아는 자가 있는가?” 검은 인영이 물었다.

“없습니다. 신께 맹세코 전 이곳에 혼자 왔습니다.”

레아는 여전히 얼굴을 손에 묻은 채 대답했다. 검은 인영은 발걸음

을 옮겨 높다란 창문 앞에 섰다. 그의 얼굴 위를 덮은 검은 가면이 달빛에 드러났다.

“나는 이곳의 성주다. 그리고 이 성은 그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된 적 없지. 나는 아무래도 당신을 죽여야만 하겠군.”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이곳의 정체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제 가족을 만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네. 하나뿐인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분께 남은 건 이제 저 뿐입니다. 저마저 없다면 더 이상 아버지를 돌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성주가 가면을 조심스레 벗었다. 드러난 그의 맨얼굴을 보고 레아는 놀라 입을 다물었다. 온통 털로 뒤덮인 얼굴과 입 밖으로 빠져나온 날카로운 송곳니는 사람의 것이 아닌 마치 짐승의 것과도 같았다. 털 사이로 빛나는 파란 색의 눈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성주는 그르렁대는 낮은 숨소리를 내며 가면을 다시 얼굴에 썼다. 그의 숨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에서 다시 기계적인 소리로 바뀌었다.

“방금 당신이 본 것은 저주다. 나에게, 우리 가문 전체에, 그리고 이 성에 내려진 끔찍한 저주다.” 성주가 말했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당신의 아버지가 필요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레아의 음성이 차가워졌다.

“그 자를 여기로 보낸다고 약속해라. 그렇다면 자네를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지.”

“제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순 없습니다.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성주가 위협적인 기세로 레아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곤 다정스레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가 자네의 아버지를 해친다고 말했던가? 죽인다고 말했던가? 그저 내 저주를 풀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내가 자넬 죽이면 두 번 다신 아버질 보지 못할 테지. 하지만 그저 잠깐만 그를 내게 보낸다면 내 두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레아는 고민에 빠졌다. 몸도 마음도 병든 아버질 정체도 모를 야수에게 말길 순 없는 법이었다. 하지만 레아는 가면 너머로 슬프게 반짝이는 남자의 눈을 보았다. 그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사람을 상대해 온 레아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반드시 약속해 주십시오. 아버질 꼭 돌려보내 주셔야 합니다. 어디 하나 생채기라도 났다간, 제 손으로 당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러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레아가 강한 어투로 말했다. 그녀의 견고한 표정에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맹하군. 아무도 이 두꺼운 가죽을 뚫고 칼을 꽂는 데에 성공하진 못 했는데.”

“전 해냅니다.”

“이틀 뒤 그대의 집으로 말을 두 마리 보내도록 하지. 돌아가라. 그리고 이곳에 대해선 잊는 게 좋을 걸세.”

그 말을 끝으로 성주는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잠시 후 성문 쪽에서 말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레아는 성을 나가 말의 위에 올라탔다. 주인과 달리 새하얀 말은 숲을 헤치고 달렸다. 그 누구도 길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말은 거침없이 레아를 등에 태운 채 나아갔다.

케노비 가족의 저택은 슬픔과 우려로 침체한 분위기였다. 오비완은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며 연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레아가 집을 비운 지 나흘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동네에선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란 소문에 이어 그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단 소문마저 돌았다. 오비완은 그런 추문들을 애써 못 들은 척 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그럴 리가 없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부근을 휩쓸고 지나갔던 거센 비바람은 그를 불안함에 밀어 넣기에 충분했다.

그는 며칠간 어둠 속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딸이 정말 자신을 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럴 만도 하다고.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무능해진 아비를 등에 업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온전히 레아 혼자였다. 아직 젊고 유능한 그녀가 늙고 지친 아비를 버리고 마을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오비완은 생각했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자 수척한 그의 얼굴엔 옅은 미소가 배었다. 이젠 정말 자신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던 생각마저 들었다.

식탁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그 앞에 이마를 맞대고 앉아있던 오비완은 살갓에 닿는 잠옷의 감촉이 어째선지 차갑다고 느꼈다. 부엌의 창문이 열려있나 싶어 확인해 보았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배에 무거운 짐을 집어던질 때 나는 소리 같았다. 오비완은 황급히 식탁 위의 촛대를 낚아채어 거실로 나갔다.

“레아? 레아니?”

오비완은 약한 촛불의 빛에 의지한 채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레아를 발견했다. 오비완은 당장 레아의 몸을 붙들어 숨이 붙어있는지 확인했다. 레아가 눈을 뜨자 오비완은 딸의 눈 안에 가득 찬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레아, 이게 어찌 된 일이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디 다친 덴 없는 게냐?” 오비완이 물었다.

“아버지...”

레아가 눈물을 비쳤다. 오비완은 영문도 모른 채 딸의 품에 꼭 안겼다. 한참 동안 아버지의 등을 어루만지던 레아는 간신히 몸을 떼어 오비완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디 슬퍼 말고 들어주세요.”

또 다시 비가 내릴 것 같았다. 오비완을 등에 태운 흰 말은 지체 없이 숲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나뭇잎에 얼굴이 굼힐까 두려워 오비완은 몸을 낮춘 채 말의 등에 바짝 엮드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금색 머리칼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다 우릴 위한 선택이었어요.’

오비완은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딸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다. 오비완은 레아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레아는 그에게 자신의 목숨을 열 번 내어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딸이었다. 그런 딸이 자신에게 한 부탁을 오비완이 거절할 리가 없었다. 그저 오비완은 레아의 슬픈 얼굴이 가슴 아플 뿐이었다. 그에게 이름도 모르는 사내에게 끌려가는 것보다 하나뿐인 딸을 잃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다. 그렇기에 오비완은 흔쾌히 말의 등에 올라탔다.

어쩌면 두 사람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야수와 그들 사이의 거래가 아닌, 일방적인 명령이었다. 선택권은 없었다. 그 무기력함 앞에 아버지와 딸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동이 트기 전 도착을 할 거라며 레아는 오비완의 이마에 입을 맞췄었다. 그 따스했던 입맞춤을 기억하며 오비완은 흔들리는 말의 등을 꼭 끌어안은 채 거친 나뭇가지들이 꺾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밤색 로브가 힘없이 그의 등 위에 늘어진 채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있었다.

곧 아침이 되려는 모양이었다. 뻥뻥한 나무에 가려 하늘은 보이지 않았지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덧 오비완은 규칙적인 말발굽 소리에 맞춰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잠들었다. 순백의 말은 오비완이 눈을 감자 발걸음을 서서히 늦추었다.

흔들리는 천장이 오비완의 시야에 흐릿하게 들어왔다. 공중에서 축 늘어진 채 흔들리던 오비완의 왼팔은 어느새 그의 명치 부근에 안착했다. 얼굴을 반쯤 덮은 수염 사이로 오비완의 입술이 살짝 달싹였다. 그는 피곤했다. 알 수 없는 아늑함은 그를 잠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잠깐 눈을 뜨나 싶었던 오비완은 다시 잠들었다.

거대한 남자는 자신의 팔위에서 잠이 든 오비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을 덮은 두꺼운 가면 탓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신조차 알 수 없었다.

남자는 오비완을 조심스레 침대 위에 눕혔다. 그는 침대 말에 서서 오비완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눈가의 잔주름은 그간의 세월과

고생의 흔적 같았다. 그러나 그의 열은 갈색의 속눈썹과 수염은 알 수 없는 간질간질한 느낌을 주었다.

“레아…….”

오비완의 잠꼬대에 남자는 몸을 돌렸다. 방을 나서며 그는 육중한 문을 조용히 닫았다. 남자는 복도를 지나 어딘가로 사라졌다. 어두운 복도를 밝히던 장식장 위의 금색 촛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손님이라니. 드디어 집사 노릇을 할 때가 왔나보네.”

오비완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그는 잠에서 깨는 데에 한참이 걸렸다. 머리가 겨우 맑아지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차렸다. 그의 집도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 방은 오비완의 집 거실의 두 배는 족히 넘는 듯했다. 찬찬히 방 안을 훑고 나서야 그는 지난밤 있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의 무의식은 밤사이의 일이 꿈이길 원했던 모양이다.

“드디어 깨셨군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비완은 목소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방 곳곳을 살펴봐도 인기척이라곤 없었다. 침대 옆 협탁 위의 촛대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오비완은 그제야 그 위로 시선을 옮겼다.

“...방금 그쪽이 말한 건가요?” 오비완이 아직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손님? 선생님? 아니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친구?”

“아, 제 이름은 케노비입니다. 오비완 케노비요.”

오비완은 정중하게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바닥으로 폴짝 뛰어 내린 좃대는 따라오라는 듯 문 쪽으로 팔을 휘저었다. 그것을 팔이라고 불러야 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좃대는 그 두 팔을 움직였다.

“제 이름은 르미에르입니다. 케노비 씨.”

좃대는 깜빡했다는 듯 멈춰 서서 오비완을 향해 신사답게 인사를 했다. 그리곤 방 바깥으로 사라졌다. 오비완은 아직 꿈속인가 싶어 눈을 살짝 비볐다. 곧 현실임을 자각한 그는 느릿하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군. 별일을 다 겪고 말이야. …말 하는 좃대라니.”

오비완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르미에르가 사라진 곳을 향해 걸어갔다.

탐스러운 음식 냄새를 따라 오비완은 응접실로 들어왔다. 널찍한 식탁 위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부터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귀한 술마저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만찬에 초대된 손님은 오비완 하나 뿐인 듯했다. 오비완은 르미에르가 안내해준 자리에 어색하게 앉았다. 아침인지라 입맛이 돌질 않아 오비완은 앞에 놓인 빵과 수프만 깨작였다. 그 모습을 르미에르가 언짢은 듯 보고 있었다.

“식사가 맘에 들지 않나요, 케노비 씨?” 르미에르가 물었다.

“아뇨. 제가 원래 아침엔 밥을 잘 먹지 않아서요.”

“흠. 그렇군요.”

여전히 언짢은 표정을 한 채 르미에르는 팔짱을 끼고 칠면조구이 접시 옆에 털썩 앉았다. 그의 집요한 눈빛에 결국 오비완은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었다. 입맛이 없는 탓에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 고기를 오비완은 최대한 맛있어 보이게 씹었다. 그제야 르미에르의 표정이 밝아

졌다.

신이 난 르미에르는 식탁 위를 뛰어다니며 이 음식 저 음식 모두 가져와 오비완의 접시 위에 수북하게 쌓았다. 오비완은 벌써부터 체기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아침부터 거한 식사를 마친 오비완은 조잘조잘 말을 걸어오는 르미에르를 뒤로 한 채 성 안을 돌아다녔다. 레아가 말한 야수라는 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비완은 야수가 어떤 연유로 자신을 이곳에 불러들였는지 궁금했다. 자신을 하수인으로 쓰기 위해 불러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 자가 말로만 듣던 흡혈귀라서 밤에 몰래 자신의 피를 빨아먹은 뒤 차가워진 자신의 시체를 내다 버릴 것인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중인 오비완이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진 않았다. 레아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이미 살 만큼 산 자신의 목숨 따위야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오비완은 복도에 창문이 없단 걸 깨달았다. 그는 문득 지난 밤 창문 너머로 달을 보았던 것이 흐릿하게 생각났다. 꿈인 것일까.

붉은 융단 위를 걷던 오비완은 낮선 이들의 초상화가 걸린 벽을 발견했다. 액자 속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닮아 보였다. 초상화가 남을 정도라면 이름 있는 귀족 집안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액자 주변엔 흔한 이름표조차 없었다. 연대순으로 정리된 듯 보이는 액자의 행렬을 따라 오른쪽으로 걷던 오비완은 맨 끝에 걸린 한 젊은 남자의 초상화 앞에 멈춰 섰다.

남자의 얼굴형은 정성 들여 빚은 도자기마냥 선이 고왔다. 그의 크게 쌍꺼풀이 진 눈은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싸늘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매끈하게 뽀은 콧날 아래로 굳게 다물린 입술은 장밋빛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옛되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초상화인지 만들어낸 그림인지 구분이 안 가는 얼굴에 오비완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림 위에 얹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물감을 덧칠한 듯 살짝 튀어나온 얼룩이었다. 오비완은 그 위를 손으로 살짝 문질러보았다. 그러자 흐릿하게 글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비완은 손에 힘을 조금 더 실어 문질렀다.

“스카이...워커...”

오비완이 흐릿한 글씨를 소리 내어 읽었다. 분명 오비완 외에 아무도 없었지만, 조용한 복도가 어쩐지 더 조용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성이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듯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비완은 오한이 들어 몸을 살짝 떨었다.

그는 발걸음을 떼 복도 끝에 자리한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본능적으로 이 방이 성의 주인 것임을 알았다. 뒷걸음질을 치려던 오비완은 커다란 무엇인가에 몸이 가로막혔다. 그의 머리 한참 위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났다. 오비완은 두려움에 눈을 꼭 감았다. 문고리를 그러쥔 그의 손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겉이 없는 건 그대 집안의 특징인가.” 남자의 말투는 높낮이가 없다시피 했다.

“시,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오비완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오비완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친 남자는 문고리를 당겨 방문을 닫았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남자의 기계적인 숨소리만이 일정하게 들려왔다.

“성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돼. 그 외엔 어디든 돌아다녀도 좋다. 하지만 이 방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어. 다시 여길 찾았다간 당신을 성 꼭대기에 가둘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를….”

남자는 오비완의 손 위를 덮었던 자신의 손을 들어 오비완의 어깨에 얹었다. 오비완은 몸을 떨지 않기 위해 애써야만 했다. 남자가 부드럽게 오비완의 몸을 돌렸다. 그제야 오비완은 자신을 이 성으로 불러들인 야수의 얼굴을 마주했다. 검은 가면에 가려진 탓에 진짜 얼굴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커다란 몸집과 가면 아래로 비집고 나온 황갈색의 털은 레아가 묘사한 그것과 일치했다. 오비완은 시선을 어디에 돌지 몰라 남자의 가슴팍을 쳐다봤다.

“오비완이라고 했지.” 남자가 말했다.

“네.”

“그래.”

짧은 대답을 끝으로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코앞에서 쾅 닫히는 문에 오비완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분명 저 남자는 레아에게 자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주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나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을 불청객인 듯 취급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피 말려 죽일 작정인가, 싫어 오비완은 입안이 씹쓸해졌다. 그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방문 너머의 남자가 풍기는 쓸쓸함의 향기가 지독할 뿐이었다.

다음날이 되었다. 오비완은 피곤한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아있었다. 전날보다 식탁은 더 화려해져 있었다. 오비완의 미간 주름이 더 깊어지

는 것도 모른 채 르미에르는 신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걸 다 먹으란 말입니까?” 오비완이 물었다.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뛰어난 요리 솜씨를 뽐낼 기회가 흔치 않아서 그럴 뿐이죠.”

르미에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식탁 맨 끝의 고기스튜를 접시에 덜고 있었다. 대체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이 많은 요리를 한단 건지 오비완은 궁금해졌다. 이런 저런 장면을 떠올리던 오비완은 모르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에 고개를 휘휘 저었다.

“그 분은 식사를 안 하십니까?” 오비완의 질문에 르미에르의 몸짓이 멈추었다.

“...왜 궁금한가요?”

“어제 보니 가장 구석진 방에 머무르시던데. 그 곳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실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이곳에 내려오시지도 않는 것 같아서요.”

르미에르는 대답 없이 접시를 오비완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곤 식탁의 중앙으로 가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와서 장식용 촛대인 척을 하려는 건가 싶어 오비완은 실소를 터트렸다.

“그런 건 묻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케노비 씨.” 르미에르가 딱딱하게 답했다.

“왜죠? 저도 이제 엄연히 이 성의 사람인 것을.”

“그건...”

오비완이 고기스튜를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르미에르의 음식 솜씨는 흠 잡을 데 없음이 분명했다. 르미에르는 아닌 척하며 눈을 굴려 오비완의 반응을 살폈다.

“이봐요, 촛대 씨.”

“르미에르 라니까요.”

“그래요 르미에르. 제가 순진한 소년도 아니고, 바보처럼 이 성에만 갇혀 있다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겐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어요.”

“딸과 똑같은 소릴 하는군.”

“그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제가 당신들을 돕죠. 그게 그 분께서 절 부른 이유잖습니까.”

르미에르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싶었다. 오비완은 이번엔 딸기가 얹어진 케이크를 한 입 떠먹었다. 순간 단 음식을 조심하라는 레아의 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이 성은 지어진 지 삼백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간 이 성을 관리 해왔죠. 그리고 지금 주인님은 이곳의 마지막 성주이십니다.”

“왜 마지막이란 거죠?”

“당신도 알다시피 여긴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무슨-이라고 말을 꺼내려던 오비완은 이내 포크를 들어 양념에 절인 양고기를 한 입 먹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주자 르미에르는 어느덧 오비완의 접시 옆에 와 앉아 있었다.

“가끔 사람들은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르미에르의 말에 오비완이 영문을 모른단 얼굴을 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저지르죠.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요. 제 주인님들은 그런 분들이셨나 봅니다. 운이 나빴던 탓에 그만 마녀의 심기를 거스르고 만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성의 주인도…”

“말했잖습니까, 그저 운이 나빴던 거라고요. 지금 주인님도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며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오비완은 레아를 떠올렸다. 애초에 자신이 골방에 틀어박힌 채 지내지 않았더라면 레아는 애초에 파도에 뒤집혀버린 배에 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자신이 아내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그랬다면 모든 게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다시 밀려오는 자괴감과 후회에 오비완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러자 르미에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다.

“저의 이야기가 그리 고통스러운가요, 케노비 씨? 당신이 묻기에 대답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살면서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오비완은 울음을 삼켰다. 이제 어린애처럼 울 수 있는 나이는 지난 지 오래다.

“그럼 마녀가 내린 저주가 대체 무엇인 거죠?” 오비완이 물었다.

“주인님께서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갖고 계셨습니다. 끔찍한 저주가 그 분을 저런 추한 짐승의 몸에 가뒤퍼렸죠. 그 모습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야만 저주는 풀립니다. 그간 아무도 성공한 사람은 없었고요.”

“왜 아무도 성공하지 못 한 거죠?”

“주인님께서 누구보다 자신을 경멸하시는데 어찌 다른 이가 애정을 품겠습니까.”

오비완은 턱을 만지며 생각에 빠졌다. 그리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포도주로 목을 축였다.

“맛이 어떨까요? 제가 직접 담근 포도주입니다만.” 르미에르가 물었다.

“훌륭합니다. 제가 맛보았던 포도주 중 단연 최고군요.”

“그렇다면 포도주와 곁들이실 후식을 내올까요, 케노비 씨?”

“괜찮습니다.”

오비완은 ‘제발’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려다 참았다. 설마 르미에르와 남자가 합심해 자신을 살찌운 뒤 잡아먹으려는 속셈은 아닐까 의심스러워지려는 그다. 오비완은 자신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흥겹게 몸을 흔들며 부엌으로 향하는 르미에르의 꿈무늬를 흘려보며 어제 마주했던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을 떠올렸다.

밤이 되어 오비완은 잠자리에 누웠다. 자신도 모르게 이곳에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 슬슬 스스로가 무서워지려는 참이다.

그는 아침에 르미에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어제 마주한 그 남자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긴 했지만 나쁜 짓을 할 위인으로 보이진 않았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많았다. 르미에르는 더 이상 저주에 얽힌 이야길 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남자를 불쑥 찾아가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참 머리를 굴리던 오비완은 답답함에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을 나가 위층으로 향했다. 아치형 간이 문을 지나자 곡선으로 뻗은 좁은 계단이 드러났다. 오비완은 계단을 비추는 달빛을 보았다. 바깥 공기라도 쉴 작정으로 그는 계단을 조심스레 올랐다.

성의 꼭대기에 다다르자 테라스가 드러났다. 그 곳엔 허리께에 오는 난간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며칠 전 말을 타고 지나온 울창한 숲과 정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오비완은 서늘한 밤공기가 폐부를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때 테라스 아래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래는 그 남자의 방이었다. 오비완은 난간 너머로 허리를 기울여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버릇처럼 수업에 손을 가져다 댄 오비완은 잠시 고민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그 말을 떠올린 오비완은 다시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자의 방문 앞에 도착한 오비완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다. 방에 들어오지 말라던 남자의 말이 기억난 그는 망설였다. 오비완이 조심스레 귀를 방문에 밀착시키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오비완은 어릴 적 아버지와 사냥을 나갔다가 저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허벅지에 화살을 맞은 늑대가 죽어가며 내던 소리였다.

“제발...그만...!”

순간 사람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오비완은 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오비완은 손을 뻗어 벽을 더듬으며 앞으로 걸어가야만 했다. 내부는 생각보다 더 넓었다. 오비완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다. 벽을 돌아 위로 기다란 창문이 나타났다. 파란 달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남자는 창문 아래에 쓰러져있었다. 그르렁대는 숨소리에 오비완은 겁을 먹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남자의 곁에 앉았다.

고통스럽게 숨만 내뿜는 남자는 오비완이 방에 들어온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오비완은 호흡조차 버거워 보이는 남자를 위해 가면을 벗기려 했다. 남자가 고개를 거칠게 흔드는 바람에 오비완은 손길을 거둬야만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오비완이 물었다.

“...나가.”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그냥 나갑니까.”

오비완은 남자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 어깨 부근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남자가 반사적으로 오비완의 손을 쳐냈다.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이 달빛에 반짝였다. 오비완의 팔을 타고 흐른 붉은 피가 손끝에서 방울방울 떨어졌다.

결국 남자는 오비완을 또 다시 양팔에 안은 채 위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저 팔만 다친 것뿐이라고 한사코 거절하는 오비완을 무시하고 남자는 가볍게 그를 안아 들었다. 오비완이 묵는 방으로 향하면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비완은 피가 멈추지 않자 민망한 얼굴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조용히 자신의 망토를 상처 위에 덮었다.

방에 들어와 오비완의 팔을 치료해주며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두껍고 털로 뒤덮여있었지만, 상처를 치료하는 손길은 섬세했다. 오비완은 침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남자의 커다란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다.

“이제 됐어. 약을 발랐으니 며칠 내에 아물 거야.” 붕대의 매듭을 지으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아파요. 고통 받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라.”

오비완의 말을 못 들은체하며 남자가 일어서려 했다. 오비완은 그런 그의 소매를 잡아 저지했다.

“왜 고통 받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난 저주받았으니까.”

“그 놈의 저주인지 뭔지를 풀기 위해 날 여기 부른 거잖아요. 그럼 내게 이야길 해줘요. 내가 무얼 해야 할지.”

매듭을 완성한 남자는 봉대를 발톱으로 끊어냈다. 오비완은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손 좀 봐. 흥측하지?” 남자가 물었다.

“이 발톱 때문에 난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어. 내 커다란 송곳니는 숨 쉬는 순간마다 잇몸을 아프게 찢어대지.”

검은 가면 사이로 빛나는 파란 눈빛이 오비완의 눈과 마주쳤다.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던 오비완이 손을 들어 남자의 가면을 벗겨내었다. 남자는 이번엔 그의 손길을 쳐내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지자 털로 뒤덮인 짐승의 얼굴이 드러났다.

“훨씬 보기 좋아요.” 오비완이 말했다.

“이 모습이?”

“적어도 지금은 당신도 나처럼 숨 쉬는 생명이란 걸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 말에 남자가 작게 웃었다.

“내 얼굴도 추하지 않나요? 늙어버린 탓에 주름도 여기저기 생기고, 수염도 덩수룩하죠. 피부도 푸석푸석해요. 만져 봐요.”

오비완이 남자의 커다란 손을 덥석 잡아끌어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대었다. 남자는 황급히 발톱을 숨기고 손가락 마디를 구부려 오비완의 볼을 만졌다.

“당신의 얇은 피부가 싸움에 유리해 보이진 않는 군. 머리통도 손도 그렇게 조그매선.” 남자의 말에 오비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저주를 풀 방법을 알려 줘요.”

“.....날 사랑하나?”

남자의 질문에 오비완은 반사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지금 나올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오비완이 대답하지 않자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을 해 보였다.

남자가 오비완의 몸 쪽으로 팔을 뻗었다. 오비완은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손길을 피했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말없이 손을 거두었다. 그러곤 험탁 위에 놓인 촛불을 붙여 끈 뒤 방을 나갔다. 남자의 커다란 발이 복도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소리가 문밖에서 점점 멀어졌다.

혼자 남은 오비완은 한참 동안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조금 전 남자의 상처 받은 눈빛이 눈을 감으면 아른거렸고, 귀에선 자꾸만 짐승의 슬픈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오비완이 팔을 다쳤던 그날 밤 이후 남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비완은 적막한 성에서 무얼 할까 고민했다. 르미에르를 데리고 놀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벌써부터 지치는 기분인지라 금세 생각을 접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오비완은 서재로 향했다. 며칠 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성을 돌아다니다 찾은 곳이었다. 요즘 식사시간과 잠을 잘 때 빼고는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가문의 성답게 서재에는 희귀한 책들이 많았다. 천장까지 빼곡

하게 꽂힌 책들을 보며 오비완은 이곳을 보고 좋아할 레아를 떠올렸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오비완은 조금만 오래 활자를 읽으면 눈이 금방 피로해졌다. 뻑뻑한 눈을 비비며 오비완은 남자에게 돋보기를 구해달라고 말할까 고민했다.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으니 잠이 몰려왔다. 저녁도 배부르게 먹었겠다, 고목나무로 만들어진 책장의 향기까지 더해지니 나른하기 짝이 없었다. 오비완은 바닥에 앉아 책장에 등을 기대는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깬 오비완은 손안에 있어야 할 책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몸이 따뜻하기에 고개를 내려 보니 그의 몸 위엔 담요가 둘러있었다. 분명 바닥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가 누워있는 곳은 서재 구석에 놓여있던 소파였다. 오비완은 눈을 느리게 깜빡이며 서재를 둘러보았다. 서재 반대편 안락의자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커다란 얼굴보다 한참은 작은 안경을 위태롭게 코 위에 걸친 채 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몽롱한 정신과 남자를 오랜만에 본 반가움이 더해지자 오비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 안경. 잘 어울리네요.” 오비완의 목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책에서 떴다.

“바닥에서 잠들면 허리가 아플 텐데.”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다.

“...늙은이 배려해줘서 고맙군요.”

오비완이 길게 하품을 하며 소파에서 내려왔다. 그는 남자가 앉은 곳으로 걸어가 남자의 얼굴 위에 걸쳐진 안경을 뺐다. 그 모습을 남자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오비완은 안경을 써보았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 오비완이 말했다.

“뭐가 말이지?”

“나이를 먹으면 잠깐만 책을 읽어도 눈이 피로해집니다. 안경이 필요했는데 마침 잘됐네요. 이걸 내가 빌려도 되겠죠?”

잠에서 막 깬 오비완에게선 포근한 단향이 났다. 남자는 코를 킁킁거리고 싶은 욕구를 참았다. 모습은 짐승이어도, 그에게 아직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남자의 옆에 앉은 오비완이 말했다.

“내가 왔더니 당신이 잠들어있더군요.”

수염을 만지작대는 오비완의 손길을 남자가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보니 당신에게 고맙단 말을 하지 않았네요. 레아를 무사히 돌려보내주어 고맙단 말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당신의 딸은 아버를 꼭 닮았더군요.”

남자의 말에 오비완은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막상 이 성으로 향할 땐 레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거란 각오를 했지만, 막상 혼자 남을 레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러오는 오비완이었다. 그의 눈이 슬픔과 그리움으로 아른거렸다. 남자는 그런 모습을 유심히 쳐다봤다. 익숙한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팔의 상처는 다 아물었나?” 남자가 물었다.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테죠. 이 황량한 성도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을 것이고요. 이 책들을 거쳐 간 손도 수없이 많을 테고.”

남자는 말없이 오비완을 바라보았다. 오비완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제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린 아주 행복했죠. 그녀가 떠난 이후 전 그냥 쓸모없는 아버가 되어버렸어요. 레아에게 못 해 준 게 너무 많죠.”

“쓸데없는 염려는 마. 당신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터이니.”

“그럼 왜 당신은 마치 곧 죽을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비완이 남자의 곁으로 더 바짝 다가왔다. 단호한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남자는 골이 아파왔다.

“어쩌다 이런 꼬장꼬장한 늙은이를 집에 들여서는, 이라고 생각하는 표정 같군요.”

“아닐세.”

“당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저주가 걸린 것인지는 전 모릅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진 도울 것입니다. 전 그저 딸에게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으면, 그거면 됩니다.”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지. 그나저나 팔이 다 아물었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는군.”

남자가 오비완의 팔을 잡아 옷소매를 조심스레 걷었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게 났던 모양인지, 아직까지 붉게 벌어진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피부 재생이 남들만큼 빠를 나이는 아니죠.” 오비완이 말했다.

“내일 집사에게 약초를 구해오라 말해야겠군.”

“집사? 그 촛대를 말하는 건가요.”

“응. 말이 좀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 충실한 친구이지. 약초에도 능통해 도움이 될 거야.”

바깥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비완은 어깨를 작게 움츠렸다. 살짝 열린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와 오비완은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닫으려했다. 몸을 덮은 담요에서 손을 빼내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창가에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뒤로 다가온 야수가 창문을 걸어 잠갔다.

“겨울도 아닌데 눈이 내리네요.” 오비완이 신기하단 얼굴로 말했다.

“이 성 뿐만 아니라 이 숲 전체가 모두 저주받았어. 번개가 치다 눈이 내리는 숲이 있을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테지.”

“아름다운 걸요.”

“...출다면 내게 이야기하도록 해. 집사에게 방을 데워두라 할 테니.”

오비완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얄게 웃었다. 창문에는 벌써 성애가 끼고 있었다. 오비완은 손가락으로 그 위를 문질렀다. 번개가 번쩍였다. 오비완은 순간 창문에 비친 야수의 모습 위로 며칠 전 복도에서 보았던 젊은 남자의 초상화가 겹쳐 보였다.

그는 뒤를 돌아 창턱에 걸터앉았다. 두꺼운 담요 덕에 등이 시리진 않았다. 남자의 표정을 읽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털에 덮인 얼굴 사이로는 그의 눈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한 대로 가면을 이제 쓰지 않는군요.” 오비완이 말했다.

“이쪽이 훨씬 보기 좋다면야.”

잠시 손가락을 두드리며 고민하던 오비완은 손을 들어 남자의 뺨에 갖다 대었다. 오비완의 손이 절대 작은 편은 아니었으나 거대한 남자의 얼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아 보였다. 남자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언가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런 애정의 행위 자체가 처음인 것처럼 가만히 온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오비완이 말했다.

“난 짐승이야. 추하기 이를 데 없지.”

“그럼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씀이십니까. 전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저주받은 곳과 어울리지 않아요.”

“난 내게 어울리는 저주를 받은 거야. 나같이 끔찍한 자를 누가 사랑하겠어.”

오비완은 며칠 전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던 남자의 표정을 떠올렸

다. 묻는 이의 얼굴엔 그 어떠한 확신도, 털끝만큼의 믿음도 없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온 남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마저 잊어버린 것이었다. 참으로 고독했다.

“왜 그런 슬픈 얼굴을 하는 거지?”

남자의 물음에 오비완은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것을 알았다. 남자는 오비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이 오비완의 얼굴을 할컬까 차마 그러지 못 했다. 그러자 남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세상에 불행해 마땅한 사람은 없어요.”

오비완이 눈을 한 번 깜빡이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그의 슬픔이 창틀에 쌓인 눈처럼 차츰 녹고 있었다. 남자는 낮게 그르렁대며 오비완의 손에 얼굴을 더 묻었다.

“당신이 이 성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기꺼이 성을 태운 뒤 새로 지어줄게. 정원의 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뿌리까지 모두 뽑아버린 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줄게. 그러니 울지 마. 당신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자의 말에 오비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지그시 오비완을 내려다보았다. 뒤에 이어질 질문이 무엇일지 오비완은 알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난 아직 그 질문에 답해줄 수가 없어요.”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틀에 앉은 오비완을 가볍게 들어 자신의 품에 안았다. 오비완은 포근한 남자의 털에 얼굴을 기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비완은 그대로 남자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

오비완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자 남자는 조심스럽게 오비완의 얼굴 위에서 안경을 벗겨내었다. 그렇게 남자는 오비완이 잠든 후에도 그를

한참 동안 품에 안고 있었다.

또 며칠이 지났다. 오비완은 이제 혼자 밥을 먹지 않는다. 르미에르는 직접 아래까지 행차해 식사를 하는 주인이 어색한지 말수가 적어졌다.

서재에서의 대화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남자가 소리 내어 웃는 일도 잦아졌다. 해가 뜨면 두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거닐었고, 해가 지면 함께 서재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수염이 길었으며 거울을 붙잡고 인상을 쓰는 오비완을 위해 남자는 직접 그의 수염을 다듬어주기도 했다. 얼굴에 상처를 낼까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의 모습에 오비완은 배를 잡고 웃어댔었다.

성에서 지내는 게 편해진 것인지 오비완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다. 오비완은 자꾸만 낮잠이 자고 싶어진 이유가 나이 탓이라며 슬퍼했다. 남자는 오후가 되면 꾸벅대는 오비완을 자신의 넓은 품에 안고 천천히 성을 거닐었다. 오비완이 내뱉는 숨결이 자신의 어깨에 닿을 때에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남자는 여전히 달이 밝게 뜨는 밤이면 고통에 몸부림쳤다. 오비완은 가끔 그가 신음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했다. 오비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날 고통을 참느라 손바닥에 깊게 새겨진 남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오비완의 팔에 생긴 상처가 차츰 아물어가듯,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오늘 저녁도 어김없이 식탁 위는 화려했다. 마주 앉아 말없이 포크만 움직이는 오비완과 남자의 사이에 앉은 르미에르가 기대가 가득한 얼굴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요, 두 분?” 르미에르가 물었다.

“맛있어요. 르미에르의 음식 솜씨는 나날이 좋아지는 군요.”

오비완의 대답에 르미에르가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곤 남자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오비완의 입에만 맞는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 말에 오비완은 하마터면 포크를 손에서 떨어트릴 뻔했다. 낮간지러운 말을 뱉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지 남자는 평온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밤하늘이 맑네요. 식사를 마치고 좀 걷고 싶어요.” 오비완이 말했다.

“그런가.” 남자가 무심히 답했다.

“같이 산책을 가잔 말씀이시네요.” 르미에르가 끼어들어 말했다. 그제야 남자는 접시에서 시선을 떼고 오비완을 바라보았다.

“아, 산책. 말을 준비할까?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두꺼운 털옷이 필요하려나. 르미에르, 아버지가 사냥을 할 때 입으시던 털옷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걸어요.”

오비완이 남자의 말을 끊었다. 르미에르는 처음 보는 주인의 당황한 모습에 깔깔 웃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털에 뒤덮인 남자의 커다란 손이 갈 곳을 잃은 채 어색하게 식탁 위를 방황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옷을 챙겨 입고 성의 바깥으로 나왔다. 기어

코 털옷을 입히려는 남자의 손짓을 매정하게 거절한 오비완은 집을 떠날 때 챙겼던 갈색의 로브만 걸쳤다. 남자는 혼자 팔짱을 끼고 앞으로 걸어가는 오비완의 뒤를 따라갔다. 오랜만에 쉼의 바깥 공기가 반가웠던 오비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곳은 늘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눈이 왔었다. 오늘은 오비완이 성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날이 맑은 밤이었다.

남자는 연신 불안한 눈빛으로 오비완의 발아래를 살폈다. 저주받은 숲엔 무엇이 있을지 몰랐다. 갑자기 나무줄기가 오비완의 발을 감싸는 바람에 그가 넘어지진 않을까 남자는 불안했다. 그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비완은 어두운 숲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인간의 몸을 한 주제에 무섭지도 않은가.” 남자가 뒤에서 중얼거렸다.

“당신이 같이 있잖아요. 뭐가 무섭겠어요.”

남자는 오비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흉측한 손이 야속하기만 했다. 슬쩍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본 오비완이 먼저 손을 뻗어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봤자 남자의 검지손가락을 겨우 감싸 안는 게 다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고요한 숲을 거닐었다.

“스카이워커. 당신의 이름이죠?” 오비완이 물었다.

“묻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나만 당신 이름을 모르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오비완이 잡고 있는 남자의 손가락을 힘주어 당기며 툭툭했다. 어느덧 숲의 중앙까지 들어온 두 사람은 커다란 나무 앞에 도착했다. 남자는 나무 아래에 등을 기대어 앉은 뒤 오비완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앞에 앉혔다. 남자의 커다란 가슴팍에 기대는 오비완은 여전히 심술이 난 얼굴이었다.

“이 나무는 저 성이 지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곳에 있었어. 이 숲의 터줏대감이지. 난 어릴 때 잠이 오지 않으면 새벽에 성을 빠져나와 여기 앉아 있곤 했어.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

남자가 여전히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오비완의 손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다.

“언젠가 정말로 저 성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야. 그럼 이 나무도 언젠간 베어지겠지. 숲의 저주가 풀리면 모든 게 변할 테니까.”

“...왜 당신은 늘 곧 떠날 사람처럼 말해요?”

“떠나야만 하니까.”

“저주를 풀어달라면서요. 고통에서 벗어난 삶을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의 저주를 풀면, 죽을 걱정인 거죠?”

쏘아붙이듯 질문을 끝낸 오비완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남자는 오비완의 몸을 들어 올려 자신을 마주 보게 했다.

“당신이 말했잖아. 당신은 그저 딸에게 무사히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난 저주를 풀어준다고 했지 당신이 죽게 내버려 두겠다고는 안 했어요. 어째서...”

“그게 날 돕는 거야. 오비완. 당신은 레아와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된 거야.”

오비완이 성이 난 얼굴로 남자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날렸다. 남자는 가만히 뺨을 내어주었다. 그가 아무리 세계 때려봤자 남자에겐 조금의 타격도 입힐 수 없었다. 오비완은 팔을 한 번 더 휘두르려다가 포기했다. 그는 상체를 힘없이 기울여 남자의 품에 안겼다.

너무 멀리까지 왔단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남자의 삶에 깊게 관여하게 된 것인지, 그는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죽지 마요. 왜 당신의 끝을 나 같은 사람에게 내어주려 그러니까.”

오비완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봐.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이 숲에서 유일하게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이야.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영원한 평온.”

오비완이 고개를 들어 남자의 턱에 콧잔등을 비볐다. 남자에게선 짐승의 축축한 냄새가 아닌, 마른 나무 향이 났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공기는 전과 똑같이 선선했다. 오비완은 남자의 어깨에 쌓인 눈을 만져보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이 차갑지 않았다.

“저주받은 숲의 날씨란 종잡을 수 없지.” 남자가 말했다.

“차갑지 않은 눈이라니. 저주가 아니라 우릴 위한 축복 같아요.”

신기한 듯 눈을 만지작대는 오비완을 남자가 내려다보았다.

“그러게. 마치 저주가 아니라 축복 같군.”

오비완의 머리 위에 쌓인 눈을 남자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털어주었다. 죽지 말라던 오비완의 말이 자꾸만 남자의 마음에 걸렸다. 저주 이후의 삶에 대해선 상상해보지 않은 그다.

오비완도 이제 성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남자의 뒷모습을 그도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순 없었다. 무엇보다 이제 남자의 저주를 풀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겠단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비완. 내게도 이름이 있었어. 오랫동안 불리지 않은 이름이지. 길 위의 떠돌이조차 두려워하던 그 이름. 대답할 때 그걸 꼭 불러주어야

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요. 죽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생각에 빠진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닷소리만이 시간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릴뿐이었다.

“당신이 죽고 나만 남겨진다면 그게 내 저주예요. 난 다시 어둠에 날 가두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거예요. 날 저주 속에 가두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떠나요.”

“...그대의 고집을 꺾기란 참으로 어렵군.”

“내 말에 대답해요.”

“그래. 죽지 않을게.”

오비완이 남자의 등을 세게 끌어안았다.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온 그였다. 더 이상 누군갈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오비완은 남자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뒤에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망설이는 것인지 남자의 대답이 이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오비완은 뺨에 축축한 무엇인가가 닿는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다. 뒤이어 오비완의 눈이 커졌다.

“안 돼...”

남자의 어깨에 화살이 꽂혀있었다. 그는 조금 전 들렸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그저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소리인 줄만 알았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어깨에 꽂힌 화살을 뽑았다. 그러자 피가 더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오비완은 어떻게든 피를 막아보려 애썼다. 등 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오비완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당신이 날 배신한 건가? 왜지?” 남자가 힘없이 물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오비완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일으키고 남자가 어딘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다. 오비완은 그대로 의식의 끈을 놓았다.

흘날리던 눈은 점점 눈보라로 변해가고 있었다. 숲의 온기는 물러가고 다시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빠. 정신이 드세요?”

오비완은 레아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가 있는 곳은 숲속의 성이 아닌, 레아와 살던 집이었다. 오비완은 황급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몰려오는 어지럼증에 휘청하자 레아가 오비완을 잡았다.

“아직 움직이시기엔 일러요.” 레아가 걱정스레 말했다.

“어떻게 집에 돌아온 거니? 난…난 숲에 있었는데. 그 남자. 그 남자는 어떻게 된 거지? 화살에 맞았었어. 피가 흐르고…….”

오비완은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맞추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다. 레아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일단 좀 쉬셔야 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난 도저히 모르겠구나. 어쩌서 그 숲에 사람들이 온 거고, 어떻게…어떻게 날 여기로 데려온 거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절 따라오세요.”

레아가 오비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도록 부축했다. 오비완은 레

아에게 몸을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레아가 그를 데리고 내려간 곳은 집 지하실이였다. 거대한 무언가가 어두운 구석에 누워있었다. 그 익숙한 모습에 오비완은 레아의 품에서 빠져나와 달려갔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숨만 내쉬고 있었다. 오비완은 그의 팔위에 얼굴을 부비며 눈물을 흘렸다.

한참 동안 그의 체온을 느끼던 오비완은 몸을 일으켜 레아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한 오비완의 표정에 레아가 입을 열었다.

“전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의 행방을 묻더군요. 전 사람들이 정말 그 깊은 숲속까지 찾아갈 거라곤 생각하지 못 했죠. 근데 어찌나 막무가내이던지...”

오비완이 집을 비운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지 레아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오비완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볼을 쓰다듬었다.

“온갖 무기를 챙겨서 숲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뒤를 간신히 쫓아갔어요. 전 아버지가 그 멍청한 인간들의 화살에 맞지 않기만을 기도해야했죠. 그자들은 끔찍한 짐승이라며 저 남자를 당장에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뭐, 결국은 제 뜻대로 두 분을 여기로 무사히 모셔왔죠.”

“레아.... 널 그런 일을 겪게 해 미안하구나.”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요. 아버지도, 저 분도. 의원님께서 어깨의 상처는 금방 나을 거라 말씀하셨으니 금방 눈을 뜨실 거예요.”

오비완은 어느덧 듩직하게 자란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성에서 잘 먹고 지냈을 게 분명함에도 오비완의 몸이 작게만 느껴지는 레아였다.

남자의 걸을 지키겠다 오비완의 뜻이 워낙 완고했기에 레아는 지하

실을 떠났다.

잠에 든 남자의 얼굴은 어째선지 편안해 보였다. 그가 그토록 바란 평온은 꼭 죽음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저주받은 성을 떠난 그는 이미 평온을 찾은 듯했다.

“케노비 씨?”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에 오비완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목소리의 근원지는 바닥이었다.

“르미에르!”

오비완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하마터면 촛대를 끌어안을 뻔했다. 다행히 르미에르의 몸집이 손바닥만 했기 때문에 오비완은 촛대 꼬트머리를 잡고 약하게 흔들기만 했다.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오비완이 물었다.

“숲에서 소란이 일기에 몰래 따라왔습죠. 제 주인님이 죽기라도 하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이성적인 겁니까? 제가 모습을 들키지 않고 말에 잘 올라탔기에 망정이지, 들켰다간 저도 강바닥에 가라앉았을 게 뻔해요!”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식사는 하셨는지요?”

“아뇨. 방금 일어난 걸요.”

“이런. 곤란한 일인데요.”

르미에르가 짐짓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지하실을 뛰어 올라갔다. 몇 백 년 간 성을 지켰다고 하더니, 정말 집사 노릇이 몸에 밴 듯한 그였다.

오비완은 남자의 이마를 쓸어 넘겼다. 편히 잠든 남자의 모습은 처음 보는 그였다. 늘 자신이 먼저 잠에 들거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

자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이다. 오비완은 남자의 머리 가까이에 얼굴을 가져다 대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아직 못 했군요.”

오비완이 남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떨어졌다.

“사랑해요.”

“.....나에게도 이름이 있어.”

“스카이워커 씨!”

잠든 줄 알았던 남자의 손이 오비완의 볼을 약하게 쓰다듬었다. 놀란 오비완은 남자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방금 막 눈을 뜬 남자는 다시 숨이 막혀왔지만, 그저 웃으며 오비완의 등을 감싸 안았다.

“내 이름은 아나킨이야.”

“사랑해요, 아나킨.”

오비완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두웠던 방 안이 누군가 불꽃을 터트린 듯 환해졌다.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은 빛에 오비완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프의 선율이 들려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치는 바람에 오비완은 자신을 감싸 안은 남자의 품을 꼭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참 뒤 사방이 고요해지고, 빛은 잠잠해졌다.

“오비완. 눈을 떠봐요.”

남자의 목소리에 오비완은 서서히 눈을 떴다. 벽에 걸린 초상화 속의 그림 같던 남자가 눈부신 미소로 오비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을 뒤덮은 털은 사라져 있었고, 곱슬거리는 갈색의 머리칼이 오비완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맞잡은 남자의 손에는 이제 날카로운 발톱도, 두꺼운 가죽도 없었다. 오비완은 부드러운 남자의 손을 꼭 맞잡았다.

“나도 사랑해요, 오비완.”

더 이상 환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남자의 미소가 더 환해졌다. 그가 오비완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다. 오비완은 남자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정말 떠나지 않을 거죠? 내가 당신의 저주를 풀었다고 죽지 않을 거죠?” 오비완이 물었다.

“그럼요. 잠든 동안 긴 꿈을 꾸었어요. 끔찍했죠. 숲을 헤매고 또 헤매었어요. 겨우 숲을 빠져나와 발견한 건 당신이었어요. 난 그동안 죽음만이 내게 안식을 가져다줄 거라 믿었어요. 당신을 만나고서야 그게 전부든 판단이란 걸 알았어요. 당신이 내 안식이예요, 오비완.”

남자는 이제 오비완이 다칠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저주는 사라졌고 연인들은 사랑을 찾았다.

아나킨이 바랐던 것은 딱 한 가지였다. 사랑하는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화려하고 거대한 감옥을 떠나 그는 응당한 행복을 되찾았다.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절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던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오비완은 털로 뒤덮인 짐승의 모습 속에서 여린 한 남자를 보았고, 있는 그대로 그의 모습을 사랑했다. 잔혹했던 저주의 끝은 결국 사랑이었다.

르미에르가 지하실로 꺾충꺾충 내려왔다.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두 남자를 발견한 르미에르는 열었던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인간이라면 머리카락이 있을 자리를 민망하게 굽적었다.

“주인님. 드디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군요.”

르미에르의 목소리에 오비완이 화들짝 놀라며 입술을 떼었다. 오비완의 얼굴을 손에서 놓친 아나킨의 눈썹과 눈 사이가 한층 더 어두워졌다.

“그래, 르미에르. 더 할 말 있나?” 아나킨이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케노비 씨의 따님과 의견 마찰이 있어서요. 전 분명 양송이 수프가 고기에 곁들이기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자꾸 그 분께서 감자 수프가 더 낫다며...”

“난 양송이가 좋아요.” 오비완이 그의 말이 더 길이지지 않게 서둘러 대답했다.

“역시. 현명하신 분입니다.”

르미에르는 허리를 숙여 감사하단 뜻으로 인사를 한 뒤 지하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오비완이 맥이 풀린 듯 웃자 아나킨도 따라 웃었다.

가끔, 예기치 않은 일이 삶을 통째로 쥐고 뒤흔들 때가 있다. 우린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